

구례군, 농산물가공 창업교육 성료

조별 실습 통한 맞춤형 교육...교육생 83% 수료 농가 소득 창출·농가공 경영체 활성화 적극 지원

구례군은 25일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농산물가공 창업교육 수료생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산물가공 창업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 과정은 우리지역 농업인의 가공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7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총 13회 39시간에 걸쳐 가공관련 기초 이론뿐만 아니라 소그룹별 다양한 실습으로 진행됐다. 수료식 전에는 교육과정 중 개발한 시제품 평가회를 거쳐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오흥식 교육생

은 "제품 개발에 대해 막연했던 부분을 조원들과 실습교육을 통해 구체화시킬 수 있어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우리군 가공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생산하여 판매해보고 싶다"고 수료 소감을 전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습득한 다양한 가공 지식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가공 산업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인 구례의 우수한 농산물을 이용해 많은 농가공 경영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산물가공 창업교육 수료생들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조합원은 개인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우리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제품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다. 구례=박진호기자

담양군, 고위직 공무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정립·관리자로서 책임·역할 인식

담양군은 지난 25일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4대 폭력 예방교육은 관리자로서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 배려와 존중으로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광주인권지기 '활짝' 이지는 강사를 초빙해 '폭력에 방을 위한 젠더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4대 폭력 예방안, 직장 내 사례 및 대처법 등에 대해 강의했다.

담양군에서는 4대 폭력 예방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개정하는 등 평등하고 안전한 직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고위직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강의를 계기로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양성이 평등한 직장 만들기에 앞장서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곡성군이 오는 31일까지 곡성아트빌리지 기차갤러리 2관에서 다채로운 비단 한복을 입은 인형을 전시한다. 곡성=양해영기자

아름다운 우리 옷 한복 인형 전시

곡성군, 오는 31일까지 곡성아트빌리지 기차갤러리 2관

곡성군은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해 '곡성에 한복을 입히다'라는 주제로 2021년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에는 한복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복 인형 전시를 준비한 것이다. 전시를 위해 광주대학교 패션주얼리학과와 함께 한복을 미니 어저처로 제작해 인형에 입고, 전통 풍속을 담은 디오라마를 연출했다. 또한 곡성군은 이외에도 한복 패션쇼 퍼레이드, 한복 무료 대여소,

한복 로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곡성군 한복문화지역거점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에서 주최하며 곡성군이 주관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다양한 한복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옷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 번 느꼈으면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복이 일상 속에 스며들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기자



화순 국화동산 사전예약자, 오늘부터 관람 시작

관람 첫 주 토요일 예약완료...전국 대표축제 발돋움 기대

27일부터 '화순 국화동산 사전예약제' 관람이 시작된다. 화순군은 코로나19 여파로 화순 국화 축제를 취소하는 대신 사전예약제를 운영해 국화 축제를 기다려 온 군민과 방문객에게 가을 국화의 풍성함과 정취를 선사하기로 했다. 예약은 '화순 국화동산 사전 예약' 누리집(<https://cf.hwasun.go.kr>)에서 하면 된다. 관람은 하루 4차례, 관람 인원은 하루 1000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당일 예약은 할 수 없다. 관람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를 정해 예약하면 된다. 화순군민은 별도 예약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화순=박순철기자

사전예약제 관람을 시작하기도 전에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등 벌써부터 국화동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관람 첫 주말인 10월 30일은 제한 인원인 1000명 예약이 끝났다. 방문자 지역도 서울, 강원, 제주 등 지역을 가리지 않아 전남 대표축제를 넘어서 전국 대표축제로 나아가는 '화순 국화동산'의 위상을 실감케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 국화동산에 대한 많은 관심이 감사드린다"며 "안전하고 풍성한 볼거리가 가득한 화순 국화동산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 장성 하이패스IC 설치 '순항 중'

접속도로 설치 공정 50% 완료... 도로공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장성 북부권 일대의 호남고속도로 이용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장성 하이패스IC(아이씨, 도로교차부)' 설치사업이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고속도로 접속도로 조성사업을 맡은 장성군은 현재 공정의 50% 가량을 마무리했다. 진출입로 설치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도 이달 중 측량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 추진과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가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

고 있다. 기존 장성지역 내 호남고속도로 통게이트(요금소)는 장성을 남부에 설치되어 있어 북부권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따랐다. 또 장성을 북부 농협물류센터와 보해공장 물류차량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10km 이상 남쪽으로 이동해야 해 경제성이 떨어졌다. 이에, 장성군은 장성을 북부권역인

영전리 및 유양리 일원에 하이패스IC 진출입로를 신설하기로 하고, 민선7기 주요공약사업으로 선정해 조속 시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군은 진·출입로 위치를 확정하고 국토교통부 고속국도 연결 승인, 한국도로공사 협약 체결 등 주요 절차를 신속하게 매듭짓고, 올해부터 '첫 삽'을 떴다. 사업은 장성군이 시행하는 고속도로 접속도로 공사(보해앞삼거리~국도교차로)와 한국도로공사에 맡은 하이패스IC 진입로(보해앞 국도교차로→출입로→고속도로), 진출로(고속도로 구산전→노란예술센터→방구다리) 신설로 구분된다. 접속도로는

0.46km, 진출입로는 1.4km 규모다. 장성군은 전체 공정 가운데 50%를 완료한 상황으로, 오는 11월 중 모든 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추진 중인 실시설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주민설명회와 소규모영향평가도 진행할 방침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 하이패스IC 진출입로 신설사업은 한국도로공사 측에 사업을 신청한 76개 지치만 최종 선정된 사업"이라며 "치열한 경쟁 속에 유치가 성공한 소중한 성과"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

어린이

대축제

제21회 곡성어린이축제

2021.10.29. - 31.

곡성섬진강기차마을


곡성어린이대축제
